

중동 위기로 급등 유가, 휴전에 급락

여름철 수요 대기, 개스값 급격한 하락 힘들 듯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 기대감에 힘입어 국제 유가와 개스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스 가격 인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3일 기준 전국 평균 개스 가격은 갤런당 3.22달러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10일 평균 가격(3.12달러)보다 약 3% 오른 수준이다.

개스 선물 가격은 10일 갤런당 2.09달러에 마감된 이후 전쟁 우려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직후에는 유가와 함께 정점을 찍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80달러를 넘기며 반등했으나, 지난 23일 휴전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유가는 급락세로 전환됐다.

23일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7% 하락한 70.65달러로 마감했고, 개스 선물도 약 5% 하락해 갤런당 2.22달러를 기록했다.



▲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 연안을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 사진=연합뉴스

다. 23일에는 다시 2.09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소매 개스 가격은 도매가와 달리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석유 가격 전문가 톰 클로자는 "도매 가격 하락분이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소폭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름철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클로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수요가 줄고 공급이 풍부해질 경우, 가격이 다시 눈에 띄게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석유 시장은 현재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고, 이는 가격 하락 요인"이라며 "미국의 정제 능력도 강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로자는 현재 석유 공급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으며, 철강 수입에 부과된 50% 관세로 인해 파이프 등 시추 장비의 원가가 상승해 생산 확대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가 변동은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을 당시 브렌트유는 약 두 달 만에 44%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클로자는 "최근에는 투기성 자금이 에너지 시장보다 암호화폐나 빅테크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유가 상승을 부추기던 자금 흐름이 예전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구글 중간 연봉 33만 달러 돌파

CEO 1,000만불 넘어...경호에 800만불



▲ 손다르 피차이 알파벳 및 구글 CEO. 사진=유튜브 캡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5년 위임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 중간 직급 직원의 연봉은 33만1,894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중간 연봉은 31만5,531달러였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기술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메타(Meta)의 2023년 직원 중간 연봉은 37만9,000달러로 더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다르 피차이 알파벳 및 구글 CEO는 2024년에 총 1,072만5,043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구글 중간 직원 연봉의 약 32배에 해당하며, 전

년(880만2,824달러) 대비 약 2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피차이 CEO의 기본급은 201만5,385달러였으며, 주식 보상은 40만5,630달러였다. 나머지 830만4,028달러는 '기타 보상' 항목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보안 경비, 퇴직연금, 회사 제공 차량 및 항공기 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인 경호 비용은 2023년 677만5,631달러에서 2024년 826만7,123달러로 22% 증가했다. 알파벳은 보고서에서 "손다르 피차이의 공적 위상으로 인해 회사는 경호를 제공한다"며, "2024년에는

자택 경호 및 컨설팅 비용, 보안 모니터링, 운전기사 서비스, 전 여행 기간의 개인 보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알파벳은 피차이의 보안 비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필수적이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비"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빅테크 CEO들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2024년 총 보상금 2,720만 달러 중 1,400만 달러를 세전 경호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의 경호에 2024년 한 해 동안 약 2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
T. 714.872.9377